새누리당
국회의원
민병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13년 09월 09일

담당 곽형주 비서관 tel. 02 784 6430
www.bjmin.org

휴대전화 문자 사기 스미싱 피해 다시 증가 추세

7월 피해액 4억원 육박

피해 금액 전달보다 70% 급증

□ 민병주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미싱 신고 현황 및 피해금액'에 따르면

- 2013년 7월, 스미싱 피해 신고건수는 2,726건이며 이 때, 피해금액은 총 3억 9,5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6월(3,199건・2억 3,473만원)에 비해 피해 신고건수는 줄었지만 피해금액은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임.

  * <표1. 스미싱 신고 현황 및 피해금액> 참조

<표1. 스미싱 신고 현황 및 피해금액 >

(단위 : 건/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신고현황	8,197	4,723	1,095	2,595	1,326	3,199	2,726	23,861
피해금액	57,379	33,061	7,665	16,594	9,207	23,473	39,578	186,957

* 스미싱(SMS를 이용한 통신과금서비스 결제 피해)은 2012년 12월 처음 발생한 최신 범죄 유형
* 신고된 스미싱 피해에 대해서는 소액결제대행사와 컨텐츠 제공업자 등의 검증을 걸쳐 환불조치 중

○ 지난 4월, 미래부에서 발족한 민관 협의체인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의 홍보와 예방・구제 노력 등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1월부터 점차 감소하였으나 신종수법 출현으로 인해 피해금액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보임.

□ 민병주 의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사기 수법이 속출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서비스 업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스미싱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스마트폰 보안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